

- 2014년 6월 동행종합지수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0.3%, 0.5%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1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 2014년 2/4분기 생산과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7%, 0.8% 증가한 가운데 투자는 6.1% 증가

- 2014년 2/4분기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전년동기대비 0.3%, 1.3% 증가함.
 - 2014년 2/4분기 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비내구재가 늘어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함(전분기대비로는 0.4% 감소).
 - 한편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함(전분기대비 2.1%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 감소(전분기대비 -0.8% 감소)한 반면, 건설수주(경상)는 주택·발전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분기대비 23.7% 증가함.

◆ 2014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6% 상승(생활물가지수 1.4% 상승)

- 2014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2010년=10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로는 1.6%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 및 담배(-0.2%)와 교통(-0.9%)에서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5.2%), 주택·수도·전기·연료(2.8%) 등에서는 상승함.
 - 2014년 7월 생활물가지수는 107.9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6월	1/4	2/4p	6월p
생산	광공업 생산	9.1	6.2	5.4	3.4	6.0	3.9	1.3	-0.3	0.8	1.3	-0.8	0.0	0.2	1.7	0.3	-1.6	0.7	0.3	0.6(2.9)
	제조업 생산	9.3	6.3	5.2	3.6	6.0	4.1	1.2	-0.3	0.6	1.4	-0.8	0.0	0.1	1.8	0.3	-1.6	0.6	0.3	0.4(3.0)
	출하	10.2	5.5	4.5	2.9	5.8	3.4	1.7	0.5	0.3	1.5	-0.9	0.3	0.1	1.9	0.4	-1.3	0.3	0.0	-0.6(2.3)
	내수	7.3	4.0	3.7	1.5	4.1	1.0	-0.7	-1.3	-1.7	-0.7	-3.4	-2.4	-1.3	1.7	-1.4	-3.3	1.4	1.6	0.3(2.1)
	수출	14.1	7.5	5.9	4.5	7.8	6.6	4.8	2.6	2.7	4.2	2.1	3.5	1.7	2.2	2.3	1.2	-1.2	-1.9	-1.5(2.7)
	서비스업 생산	2.8	2.7	4.2	3.0	3.2	2.6	1.5	1.6	0.8	1.6	0.9	1.7	0.8	2.1	1.4	1.0	1.9	1.3	2.2(1.6)
소비	소비재 판매	5.2	6.3	4.0	2.6	4.5	2.8	1.4	2.7	2.5	2.4	0.3	1.2	0.7	1.2	0.8	0.8	2.5	0.8	1.2(0.3)
투자	설비투자	5.2	7.4	3.2	-1.4	3.5	8.2	-4.2	-7.9	-6.4	-2.8	-13.1	-4.0	2.7	10.4	-1.3	-0.3	5.9	6.1	2.3(-1.4)
물가		3.8	4.0	4.3	4.0	4.0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4	1.1	1.6	1.6(0.1)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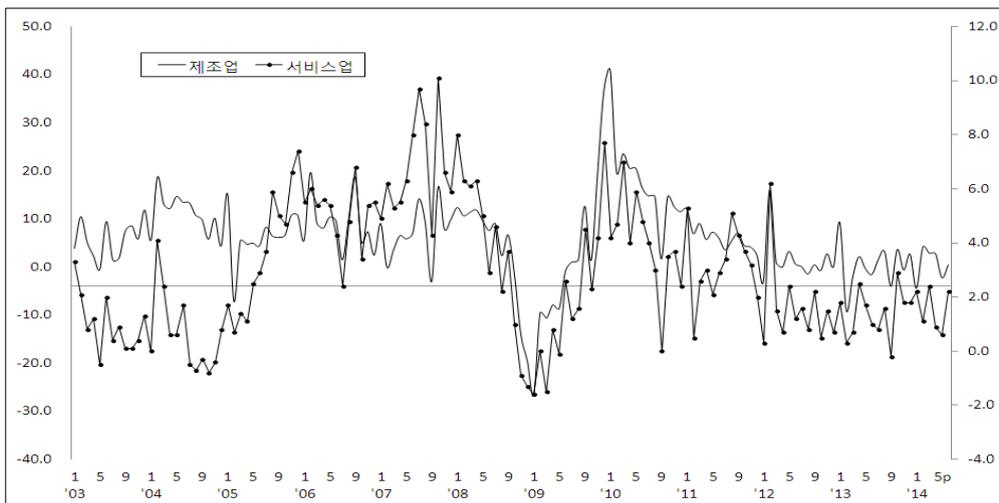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7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좌) 및 서비스업(우)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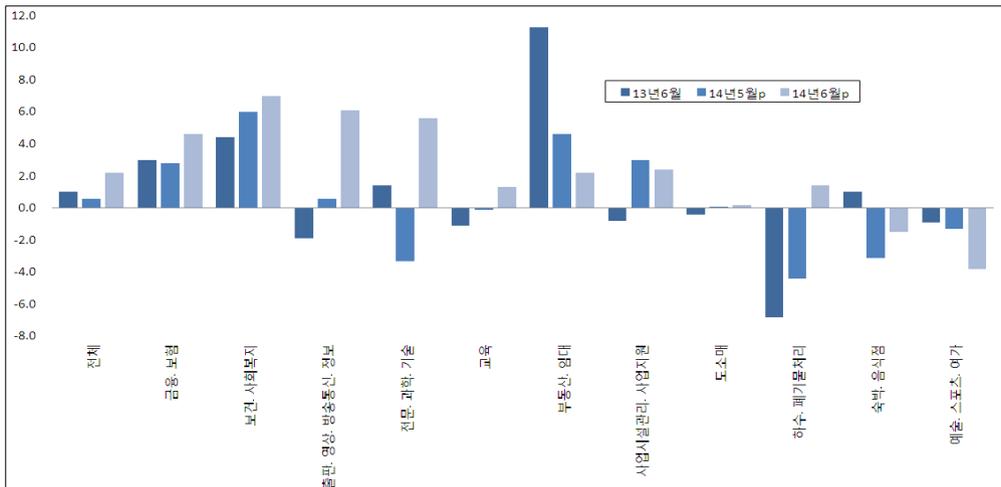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4. 7), 『2014년 6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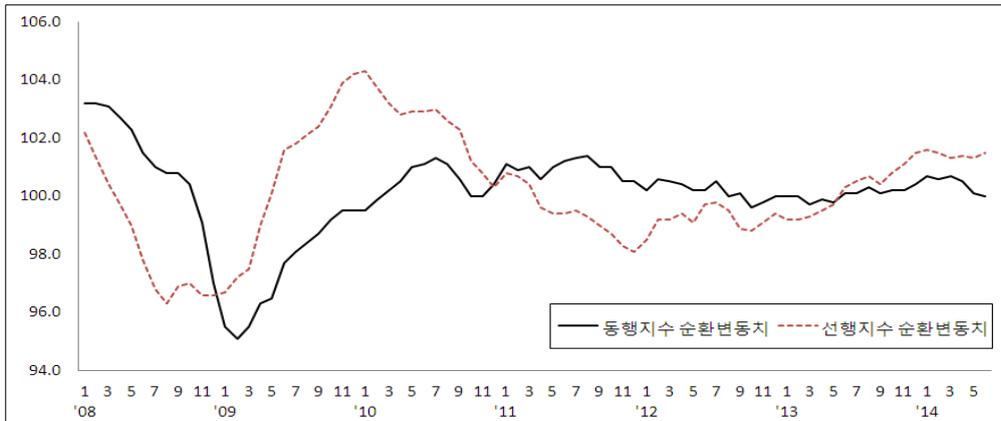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자료 : 통계청, KOSIS.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폭 지속**

- 2014년 7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89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9천 명(2.2%)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547천 명으로 285천 명(1.9%) 증가하였고, 여성은 11,344천 명으로 305천 명(2.8%) 증가하였음.

- 2014년 7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함.
 - － 성별로 보면, 남성(74.7%)과 여성(52.2%)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6%p, 0.9%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 2014년 7월 중 고용률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함.
 - － 남성의 고용률은 72.2%로 전년동월대비 0.7%p, 여성의 고용률은 50.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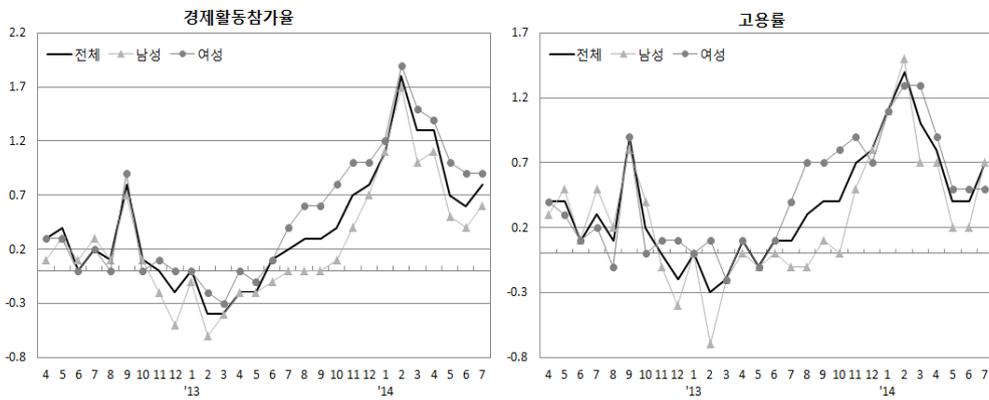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경제활동인구	25,091 (0.9)	26,138 (1.1)	26,187 (1.7)	26,301 (1.5)	26,078 (2.2)	25,945 (3.4)	26,767 (2.4)	26,825 (2.0)	26,891 (2.2)
참가율	59.9	62.2	62.1	62.4	61.7	61.3	63.1	63.1	63.2
취업자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473 (1.5)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875 (1.6)	25,979 (2.0)
고용률	57.7	60.2	60.3	60.4	60.0	58.8	60.8	60.9	61.1
실업자	907	812	777	828	733	1,031	977	949	912
실업률	3.6	3.1	3.0	3.1	2.8	4.0	3.7	3.5	3.4
비경제활동인구	16,831 (2.0)	15,911 (1.5)	15,982 (0.5)	15,844 (0.7)	16,167 (-0.6)	16,397 (-2.6)	15,685 (-1.4)	15,666 (-0.9)	15,637 (-1.3)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4. 8), 『2014년 7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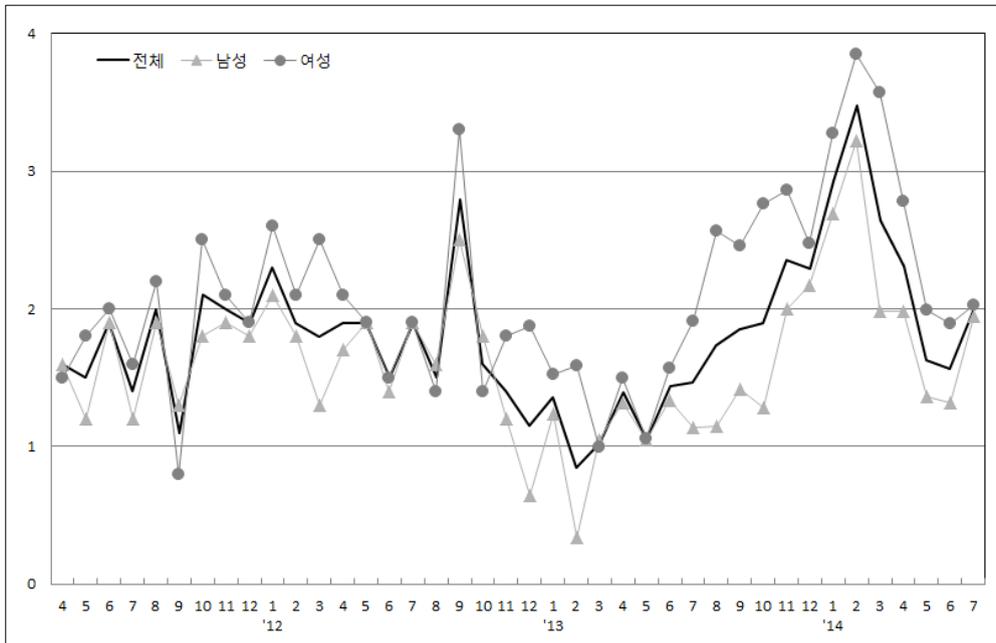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7월 중 취업자는 25,9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5천 명(2.0%)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5,02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1천 명(2.0%)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95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8천 명(2.0%) 증가하였음 (그림 5 참조).
- 2014년 7월 중 실업자는 91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천 명(10.1%) 증가,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2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0.5%)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8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7천 명(29.1%)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4%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하였고, 여성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2014년 7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6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6천 명(-1.3%) 감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25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2천 명(-1.7%)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38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 명(-1.1%)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2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천 명(-4.9%)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57천 명으로 111천 명(-2.6%) 감소하였음.

◆ 제조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가 지속

- 2014년 7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91천 명, 4.6%), 건설업(57천 명, 3.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9천 명, 1.9%),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275천 명, 4.9%)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11천 명, -6.4%)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75천 명, -2.4%)에서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7월			6월	7월
전 산업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473 (1.5)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875 (1.9)	25,979 (2.0)
농림어업	1,167 (-0.7)	1,686 (-1.6)	1,724 (1.1)	1,715 (0.2)	1,504 (-1.0)	1,179 (1.0)	1,631 (-3.2)	1,675 (-2.3)	1,604 (-6.4)
제조업	4,156 (3.0)	4,182 (3.0)	4,152 (0.6)	4,167 (1.3)	4,245 (1.2)	4,279 (3.0)	4,319 (3.3)	4,345 (4.1)	4,358 (4.6)
건설업	1,656 (-3.7)	1,801 (-0.4)	1,775 (0.2)	1,792 (0.6)	1,783 (-0.5)	1,683 (1.6)	1,813 (0.6)	1,842 (1.9)	1,849 (3.2)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534 (-0.7)	5,585 (-0.2)	5,652 (0.7)	5,652 (0.3)	5,751 (2.6)	5,837 (5.5)	5,798 (3.8)	5,803 (3.7)	5,927 (4.9)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8,656 (3.1)	8,974 (1.7)	8,990 (2.5)	9,011 (2.0)	8,994 (3.6)	8,865 (2.4)	9,147 (1.9)	9,133 (1.3)	9,180 (1.9)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999 (-0.4)	3,082 (3.1)	3,102 (3.8)	3,122 (3.7)	3,054 (1.9)	3,055 (1.9)	3,067 (-0.5)	3,063 (-0.3)	3,047 (-2.4)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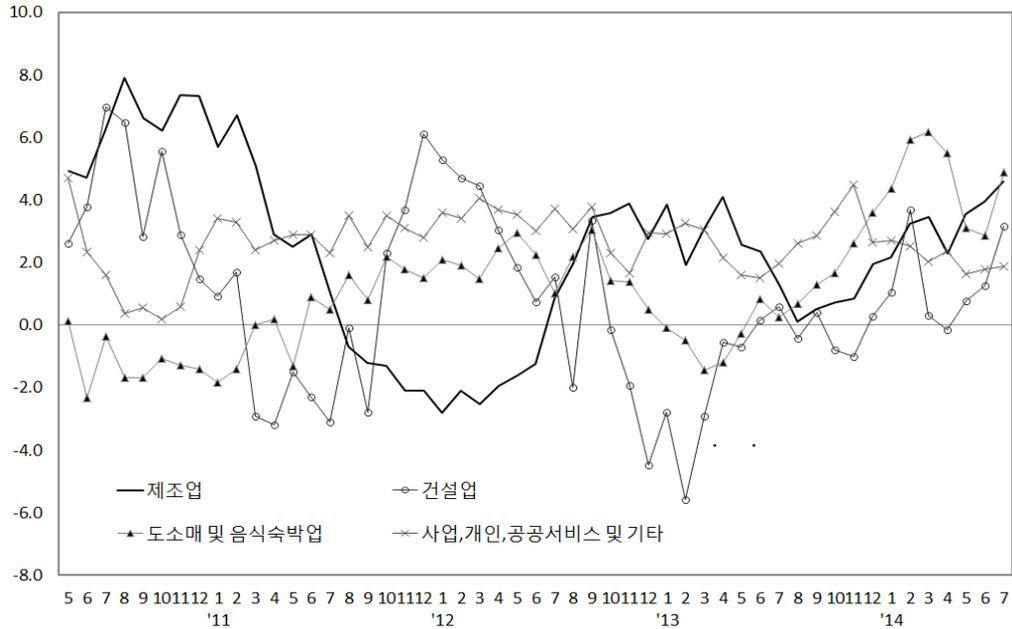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4. 8), 『2014년 7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증가폭 둔화, 임시근로자 증가폭 상승

- 2014년 7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3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 명(-0.4%) 감소, 임금근로자는 18,94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2천 명(2.9%)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165천 명으로 351천 명(3.0%), 임시근로자는 5,219천 명으로 235천 명(4.7%)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562천 명으로 54천 명(-3.3%) 감소하였음.
- 지난 201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임시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율이 상용근로자를 넘어섬(그림 7 좌측 참조).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732천 명으로 17천 명(-0.3%)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301천 명으로 10천 명(-0.7%) 감소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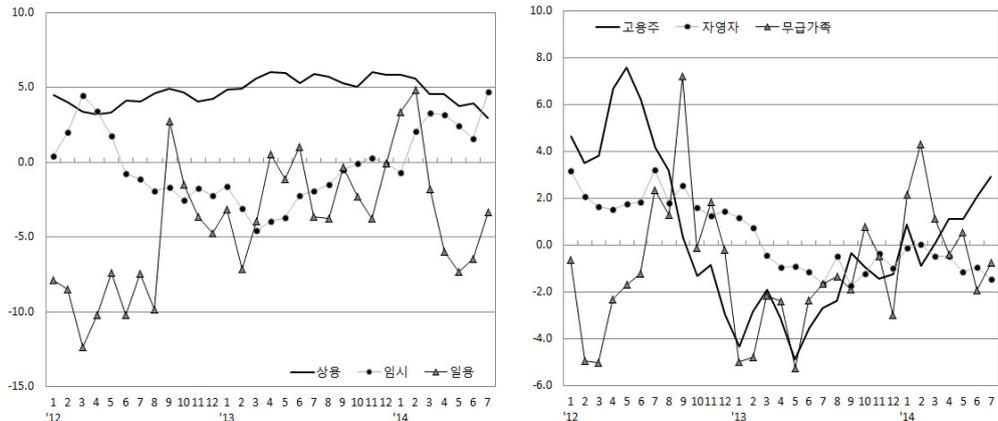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전 체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473 (1.5)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875 (1.6)	25,979 (2.0)	
비임금근로자	6,578 (-1.1)	7,006 (-2.1)	7,049 (-1.5)	7,060 (-1.9)	6,854 (-0.9)	6,597 (0.3)	6,984 (-0.3)	7,017 (-0.5)	7,033 (-0.4)	
자영업자	5,520 (-0.5)	5,726 (-1.8)	5,740 (-1.4)	5,750 (-1.9)	5,618 (-0.9)	5,512 (-0.1)	5,712 (-0.2)	5,726 (-0.1)	5,732 (-0.3)	
무급가족종사자	1,059 (-3.9)	1,280 (-3.4)	1,309 (-1.6)	1,311 (-1.7)	1,236 (-0.8)	1,085 (2.5)	1,272 (-0.6)	1,291 (-1.9)	1,301 (-0.7)	
임금근로자	17,606 (1.9)	18,320 (2.6)	18,361 (2.9)	18,413 (2.8)	18,492 (3.4)	18,316 (4.0)	18,806 (2.6)	18,859 (2.3)	18,946 (2.9)	
상용근로자	11,379 (5.1)	11,697 (5.8)	11,848 (5.6)	11,814 (5.9)	11,925 (5.6)	11,985 (5.3)	12,175 (4.1)	12,212 (3.9)	12,165 (3.0)	
임시근로자	4,762 (-3.1)	4,945 (-3.3)	4,928 (-1.3)	4,984 (-1.9)	4,935 (0.0)	4,835 (1.5)	5,063 (2.4)	5,058 (1.6)	5,219 (4.7)	
일용근로자	1,465 (-4.8)	1,678 (0.2)	1,585 (-2.6)	1,615 (-3.6)	1,631 (-2.1)	1,496 (2.1)	1,567 (-6.6)	1,589 (-6.5)	1,562 (-3.3)	
36시간 미만	5,563 (67.9)	4,821 (46.8)	5,083 (7.6)	3,625 (1.7)	3,395 (5.5)	3,593 (-35.4)	3,397 (-29.5)	3,387 (1.3)	3,578 (-1.3)	
36시간 이상	18,099 (-9.9)	20,217 (-5.6)	19,810 (0.2)	21,451 (1.5)	21,636 (1.7)	20,829 (15.1)	22,090 (9.3)	22,196 (1.7)	22,067 (2.9)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4. 8), 『2014년 7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4년 7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7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천 명(-1.3%)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67천 명으로 616천 명(2.9%) 증가

◆ 전 연령대 · 교육수준별 실업률 상승

- 2014년 7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8.9%, 0.6%p)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폭 상승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0%, 0.2%p), 고졸(4.1%, 0.3%p), 대졸 이상(3.3%, 0.2%p) 등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 2014년 7월 중 전체 실업자 912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 명 증가,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43천 명으로 73천 명 증가함.

〈표 5〉 연령별 ·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6월	7월
전 체	907 (3.6)	812 (3.1)	777 (3.0)	828 (3.1)	733 (2.8)	1,031 (4.0)	977 (3.7)	949 (3.5)	912 (3.4)
15~29세	343 (8.4)	325 (7.9)	328 (7.9)	352 (8.3)	328 (7.9)	419 (9.8)	399 (9.4)	407 (9.5)	391 (8.9)
30~39세	195 (3.3)	180 (3.0)	170 (2.9)	179 (3.0)	155 (2.6)	187 (3.2)	202 (3.4)	197 (3.3)	189 (3.2)
40~49세	143 (2.1)	146 (2.1)	131 (1.9)	143 (2.1)	114 (1.7)	155 (2.3)	167 (2.4)	146 (2.1)	147 (2.2)
50~59세	127 (2.3)	106 (1.8)	106 (1.8)	110 (1.9)	88 (1.5)	130 (2.2)	140 (2.3)	137 (2.3)	126 (2.1)
60세 이상	99 (3.4)	56 (1.6)	42 (1.2)	44 (1.2)	48 (1.4)	140 (4.4)	69 (1.9)	63 (1.7)	59 (1.6)
중졸 이하	148 (3.3)	101 (2.0)	86 (1.8)	89 (1.8)	84 (1.8)	173 (3.9)	108 (2.3)	105 (2.2)	96 (2.0)
고졸	367 (3.7)	341 (3.3)	345 (3.4)	392 (3.8)	335 (3.3)	443 (4.3)	427 (4.1)	430 (4.1)	435 (4.1)
대졸 이상	392 (3.7)	370 (3.4)	346 (3.1)	346 (3.1)	313 (2.8)	416 (3.7)	442 (3.8)	414 (3.6)	381 (3.3)
취업무경험실업자	61	48	54	57	49	83	61	67	69
취업유경험실업자	845	764	723	770	684	948	916	883	843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4. 8), 『2014년 7월 고용동향』.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4년 5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2014년 5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3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877천 원) 2.0% 증가함.
 - 2014년 5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특별급여(-11.5%)는 감소하였으나 정액급여(3.3%), 초과급여(11.9%)가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한 3,112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는 2014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3% 초반에 머물러 2013년 5월 4.6%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한 1,385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5월 실질임금은 0.3% 증가함.
 - 소비자물가상승률(2010년 기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2014년 5월 기준 0.3% 증가함으로써 3개월 연속 1% 미만을 기록함(그림 8 참조).
 - 이는 2014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이 소폭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14년 1~5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35천 원으로 전년동평균(3,069천 원)대비 2.5%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3년 1~5월 평균 대비 2.7% 상승한 3,335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3년 1~5월 평균 대비 3.3%, 초과급여는 8.6% 증가한 반면, 특별급여는 2.0% 감소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3년 1~5월 평균 대비 1.6% 상승한 1,399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1	2012	2013	2014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44 (1.0)	2,995 (5.3)	3,111 (3.9)	3,069 (4.4)	2,877 (5.6)	3,335 (2.5)	2,934 (2.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19 (-0.9)	3,178 (5.3)	3,299 (3.8)	3,246 (4.3)	3,036 (4.9)	3,112 (2.5)	
	정액급여	2,341 (4.8)	2,470 (5.5)	2,578 (4.4)	2,559 (4.7)	2,561 (4.6)	2,642 (3.3)	2,647 (3.3)
	초과급여	179 (-8.4)	181 (1.0)	184 (1.7)	180 (0.3)	190.1 (1.2)	195 (8.6)	213 (11.9)
	특별급여	498 (-19.3)	527 (5.8)	537 (1.8)	507 (3.3)	284.9 (10.5)	497 (-2.0)	252 (-11.5)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15 (15.1)	1,293 (6.4)	1,377 (6.5)	1,376 (8.0)	1,375 (11.5)	1,399 (1.6)	1,385 (0.7)	
소비자물가지수	104 (4.0)	106 (2.2)	108 (1.2)	107.5 (1.4)	107.5 (1.1)	108.9 (1.3)	109.2 (1.7)	
실질임금증가율	-2.9	3.1	2.6	2.9	4.4	1.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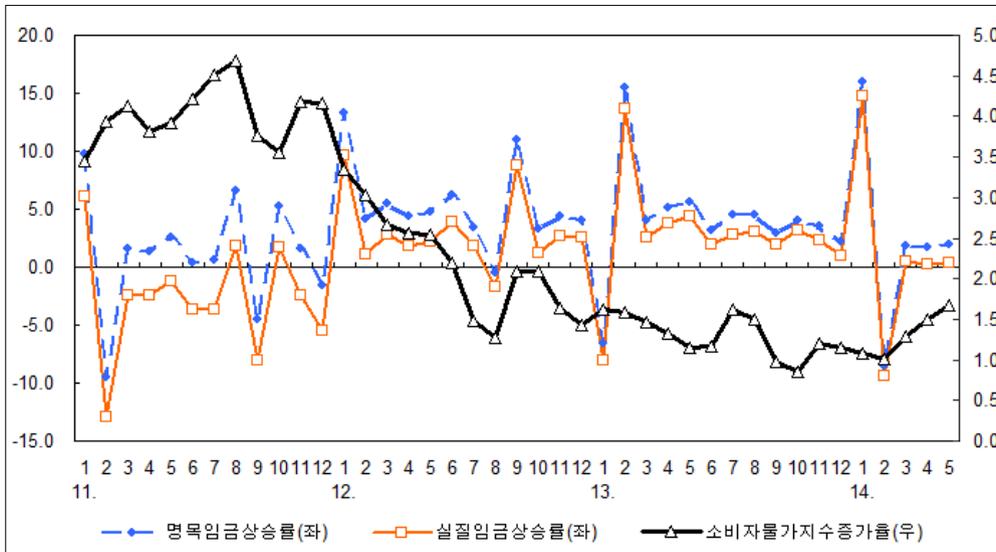
주 :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5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5월 평균 실질임금증가율은 1.2% 상승함.
 - 2014년 1~5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2013년 1~5월 평균 수준인 1.4%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
 - 2014년 1~5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모두 전년동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명목임금상승률 둔화폭이 더 커 실질임금증가율은 전년동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1.2%를 기록함.

◆ 2014년 5월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광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임금은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은 둔화

- 2014년 5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은 여가관련 서비스업(7.4%), 부동산업 및 임대업(4.6%), 제조업(4.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0%) 등에서 크게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1~5월		2014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 산업	2,995 (5.3)	3,111 (3.9)	3,069 (4.4)	2,877 (5.6)	3,147 (2.5)	2,934 (2.0)
광업	3,470 (4.9)	3,557 (2.5)	3,473 (4.2)	3,460 (0.6)	3,400 (-2.1)	3,444 (-0.5)
제조업	3,221 (6.1)	3,371 (4.7)	3,308 (5.2)	2,935 (4.7)	3,476 (5.1)	3,060 (4.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2.9)	4,972 (3.5)	4,428 (3.6)	5,172 (4.0)	4,567 (3.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654 (6.7)	2,743 (3.3)	2,669 (4.6)	2,636 (4.4)	2,749 (3.0)	2,705 (2.6)
건설업	2,273 (4.2)	2,414 (6.2)	2,427 (7.9)	2,336 (11.3)	2,475 (2.0)	2,388 (2.2)
도매 및 소매업	3,122 (6.1)	3,168 (1.5)	3,111 (2.8)	2,937 (3.9)	3,143 (1.0)	2,984 (1.6)
운수업	2,589 (8.2)	2,732 (5.5)	2,655 (6.0)	2,523 (6.6)	2,673 (0.7)	2,548 (1.0)
숙박 및 음식점업	1,738 (5.2)	1,772 (1.9)	1,739 (3.7)	1,721 (5.6)	1,745 (0.3)	1,668 (-3.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4.3)	3,936 (2.2)	3,992 (2.8)	3,847 (4.1)	3,875 (-2.9)	3,798 (-1.3)
금융 및 보험업	4,988 (4.6)	5,058 (1.4)	5,155 (2.5)	4,824 (5.2)	5,233 (1.5)	4,945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 (8.8)	2,269 (3.4)	2,215 (2.2)	2,134 (4.6)	2,295 (3.6)	2,231 (4.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6.3)	4,243 (3.2)	4,079 (2.6)	3,991 (4.5)	4,309 (5.7)	4,150 (4.0)
사업서비스업	1,789 (5.3)	1,883 (5.2)	1,852 (5.5)	1,859 (6.9)	1,895 (2.4)	1,861 (0.1)
교육서비스업	3,123 (4.6)	3,261 (4.4)	3,320 (6.0)	3,094 (6.4)	3,367 (1.4)	3,111 (0.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4.7)	2,662 (2.0)	2,635 (1.9)	2,564 (3.3)	2,607 (-1.1)	2,549 (-0.6)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3.8)	2,326 (5.2)	2,285 (7.5)	2,120 (5.0)	2,365 (3.5)	2,278 (7.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8 (2.0)	2,226 (-0.1)	2,215 (0.4)	2,099 (0.4)	2,193 (-1.0)	2,145 (2.2)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개정 산업분류 기준.
 4) 1~5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3.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6%), 광업(-0.5%) 부문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감소함.
- 2014년 1~5월 평균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7%), 제조업(5.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의 임금증가가 두드러짐.
 -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7%)이고, 제조업(5.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 부동산업 및 임대업(3.6%), 여가관련서비스업(3.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3.0%), 사업서비스업(2.4%) 등에서 임금이 상승함.
 - 반면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2.9%), 광업(-2.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0%)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이 하락함.

◆ 2014년 5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용·비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 2014년 5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은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둔화함.
 - 2014년 5월 기준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2.9%)와 초과급여(6.8%) 증가의 영향으로 1.8% 증가한 2,869천 원을 기록함. 반면 특별급여는 13.3% 감소함.
 -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3,98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함. 이는 정액급여(4.8%)와 초과급여(23.7%)의 증가에 기인함.
 - 5~299인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0.4% 증가한 1,399천 원,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5.0% 증가한 1,255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5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모든 규모에서 상승하였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짐.
 -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은 정액급여(3.0%)와 초과급여(6.4%)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1% 증가한 2,949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전년동평균대비 7.0% 하락한 영향으로 임금 상승률은 둔화함.
 - 한편 5~299인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0% 상승한 1,406천 원을 기록함.
 -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은 정액급여(4.2%), 초과급여(13.9%), 특별급여(3.7%)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4.6% 증가한 4,731천 원을 기록함.
 - 또한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9.8% 상승한 1,327천 원을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5월 평균	5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178 (5.3)	3,299 (3.8)	3,246 (4.3)	3,036 (4.9)	3,335 (2.7)	3,112 (2.5)
	정액급여	2,470 (5.5)	2,578 (4.4)	2,559 (4.7)	2,561 (4.6)	2,642 (3.3)	2,647 (3.3)
	초과급여	181 (1.0)	184 (1.7)	180 (0.3)	190 (1.2)	195 (8.6)	213 (11.9)
	특별급여	527 (5.8)	537 (1.8)	507 (3.3)	285 (10.5)	497 (-2.0)	252 (-11.5)
	비상용임금총액	1,293 (6.4)	1,377 (6.5)	1,376 (8.0)	1,375 (11.5)	1,399 (1.6)	1,385 (0.7)
5~299인	상용임금총액	2,834 (5.9)	2,938 (3.7)	2,888 (4.0)	2,818 (4.6)	2,949 (2.1)	2,869 (1.8)
	정액급여	2,333 (5.9)	2,433 (4.3)	2,413 (4.6)	2,425 (4.3)	2,487 (3.0)	2,494 (2.9)
	초과급여	156 (3.5)	160 (3.0)	157 (2.5)	169 (4.2)	167 (6.4)	181 (6.8)
	특별급여	345 (7.7)	345 (-0.3)	318 (0.9)	224 (8.2)	296 (-7.0)	194 (-13.3)
	비상용임금총액	1,301 (7.0)	1,392 (7.0)	1,392 (8.4)	1,393 (12.3)	1,406 (1.0)	1,399 (0.4)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424 (3.5)	4,583 (3.6)	4,522 (4.5)	3,822 (5.1)	4,731 (4.6)	3,988 (4.4)
	정액급여	2,965 (4.3)	3,093 (4.3)	3,079 (5.2)	3,052 (5.0)	3,207 (4.2)	3,198 (4.8)
	초과급여	275 (-3.9)	270 (-1.6)	263 (-4.2)	265 (-6.4)	300 (13.9)	328 (23.7)
	특별급여	1,185 (3.4)	1,220 (3.0)	1,180 (5.1)	505 (12.6)	1,224 (3.7)	463 (-8.4)
	비상용임금총액	1,209 (0.1)	1,219 (0.8)	1,208 (3.0)	1,195 (3.7)	1,327 (9.8)	1,25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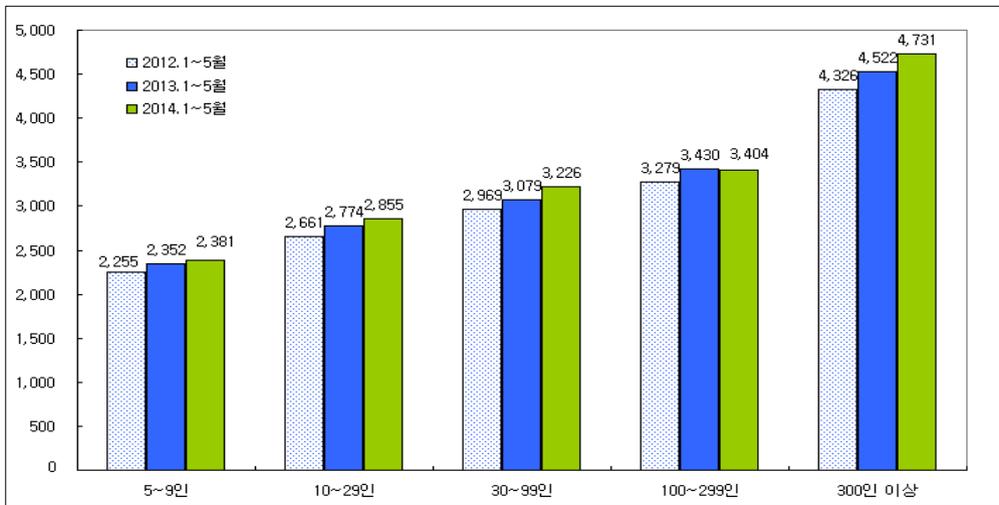
주: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5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1~5월 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주: 1~5월 평균값은 누적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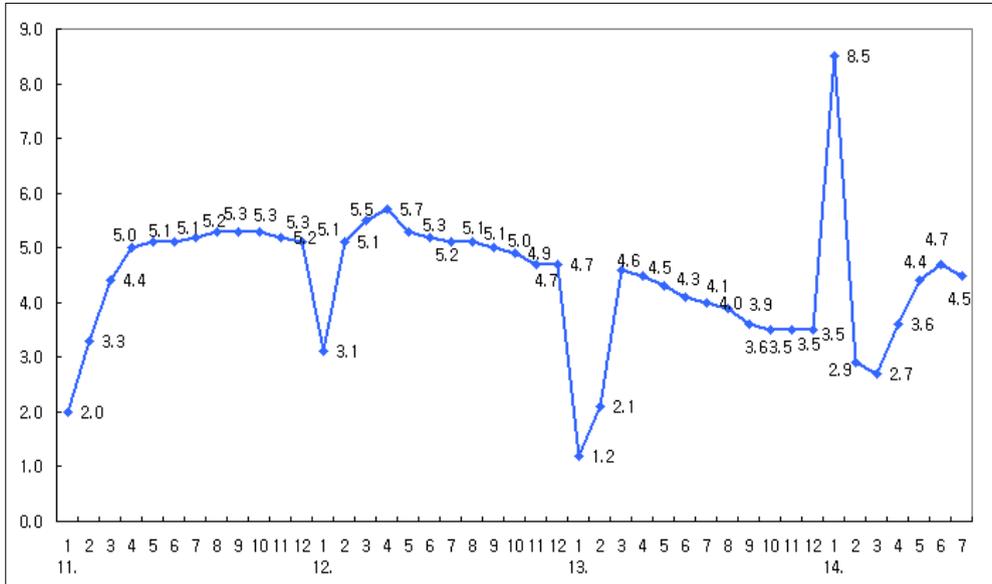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7월 협약임금 인상률 4.5%

○ 2014년 7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5%로 2013년 7월 인상률(4.0%)에 비해 0.5%p 상승함.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4년 5월 근로시간 7.3% 감소

○ 2014년 5월 근로시간은 164.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9시간(-7.3%) 감소함.

※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2일 적음.

- 2014년 5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64.7시간)은 전년동월(177.6시간)에 비해 12.9시간 감소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0.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하였고, 특히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3.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5% 감소함.
- 그러나 상용초과근로시간은 5월 현재 1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1~5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1.9% 감소함.
 - 2014년 1~5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1.0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평균(174.3시간)에 비해 3.3시간(-1.9%) 감소함.
 - 2014년 1~5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1.4% 감소한 176.8시간이었고,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7.5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6.2% 감소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2012	2013	2014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체 근로시간	174.3(-1.1)	172.6(-1.0)	174.3(-0.2)	177.6(0.2)	171(-1.9)	164.7(-7.3)
상용총근로시간	179.9(-1.2)	178.1(-1.0)	179.4(-0.6)	183.4(-0.6)	176.8(-1.4)	170.6(-7.0)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0.8)	165.6(-1.0)	167.2(-0.1)	170.5(-0.2)	163.9(-2.0)	156.8(-8.0)
상용초과근로시간	12.8(-5.9)	12.5(-2.3)	12.2(-6.2)	13.0(-5.1)	12.9(5.7)	13.8(6.2)
비상용근로시간	122.3(-0.2)	122.5(0.2)	125.2(4.1)	122.3(6.6)	117.5(-6.2)	113.1(-7.5)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5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5월 산업 전반에 걸쳐 근로시간 감소

- 2014년 5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9.8%), 숙박 및 음식점업(-9.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9.0%) 등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두드러짐.
 - 2014년 5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83.3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42.3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4년 1~5월 평균 근로시간은 교육서비스업(0.9%)과 여가관련서비스업(0.2%)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함.
 - 2014년 1~5월 평균 근로시간 감소폭이 큰 산업은 전년동평균대비 5.0% 감소한 건설업이었고,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3.9%), 운수업(-3.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1%) 등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1~5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2	2013	2014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 산업	174.3(-1.1)	172.6(-1.0)	174.3(-0.2)	177.6(0.2)	171.0(-1.9)	164.7(-7.3)
광업	185.3(-0.9)	180.6(-2.5)	182.1(-2.1)	186.2(-1.6)	179.0(-1.7)	176.9(-5.0)
제조업	186.4(-2.2)	185.0(-0.8)	186.3(-0.8)	190.5(-0.7)	185.9(-0.2)	180.2(-5.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0.9)	173.4(-1.2)	175.4(-0.5)	179.7(-0.5)	170.1(-3.0)	162.1(-9.8)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4.8(-0.8)	182.0(-1.5)	183.3(-1.0)	187.5(-0.6)	177.7(-3.1)	171.0(-8.8)
건설업	152.5(-0.9)	152.7(0.1)	156.5(3.8)	156.1(6.2)	148.6(-5.0)	142.3(-8.8)
도매 및 소매업	174.5(-0.3)	173.4(-0.6)	174.9(0.5)	176.3(0.0)	171.7(-1.8)	165.9(-5.9)
운수업	181.7(0.1)	177.8(-2.1)	178.8(-1.7)	184.0(-0.9)	172.6(-3.5)	168.8(-8.3)
숙박 및 음식점업	186.6(0.2)	177.3(-5.0)	177.4(-5.2)	186.7(-1.0)	173.8(-2.0)	169.4(-9.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9(-0.4)	163.0(-0.5)	164.5(0.6)	167.3(-0.2)	162.5(-1.2)	153.2(-8.4)
금융 및 보험업	163.4(-0.1)	162.7(-0.4)	164.6(0.9)	165.9(-0.4)	163.7(-0.5)	153.6(-7.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4(-0.4)	191.5(-1.0)	193.8(-0.7)	198.6(-0.1)	189.1(-2.4)	183.3(-7.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0.5)	163.9(-0.8)	165.5(0.0)	168.4(-0.9)	162.9(-1.6)	152.9(-9.2)
사업서비스업	173.1(0.6)	172.3(-0.5)	173.3(0.1)	177.3(0.7)	171.5(-1.0)	166.1(-6.3)
교육서비스업	151.1(-1.2)	150.6(-0.3)	151.7(0.5)	154.3(0.2)	153.1(0.9)	145.3(-5.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4.8(0.7)	172.0(-1.6)	173.8(-0.3)	177.0(-0.2)	168.4(-3.1)	163.7(-7.5)
여가관련서비스업	158.1(0.6)	158.0(-0.1)	157.8(0.8)	161.9(1.8)	158.1(0.2)	155.7(-3.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2.7)	167.5(-0.8)	169.1(-0.5)	171.7(-2.1)	162.5(-3.9)	156.3(-9.0)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개정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5월 평균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근로시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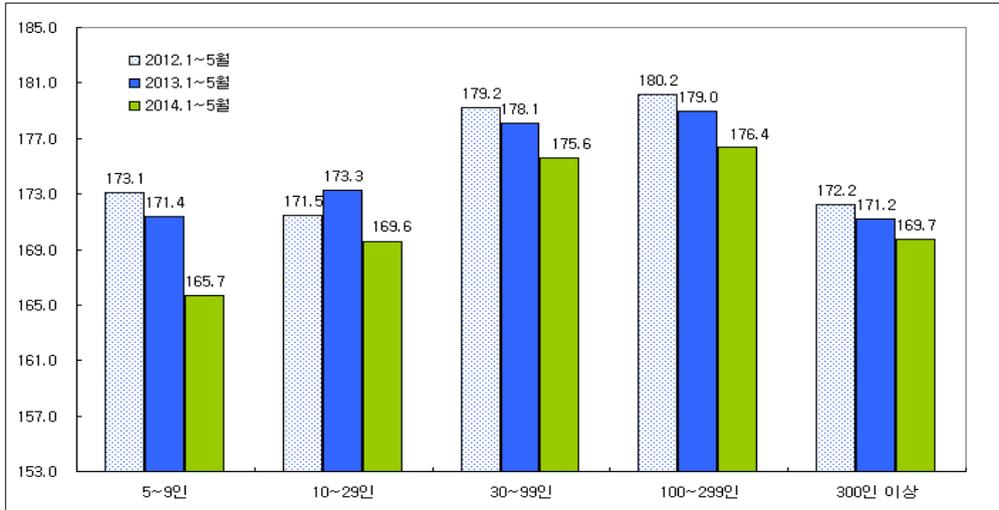
- 2014년 5월 5~299인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 모두 근로시간 감소함.
 - 세부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0.3시간(-8.1%),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3.8시간(-7.2%)으로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1.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2% 감소함.
- 또한 2014년 1~5월 평균으로 보면, 5~299인 사업체 규모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증가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4년 1~5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5.7시간(-5.7%),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6시간(-3.7%),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

시간은 175.6시간(-2.5%),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4시간(-2.6%)으로 전년동평균대비 감소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5% 감소함.

(그림 11) 규모별 1~5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7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530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7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381건)보다 149건 높은 수치임.
- 지난 7월 조정성립률 51.2%
 - 지난 7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62.6%에 비해 11.4% 낮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증가와 조정성립률의 저하를 통해 노사관계의 악화, 조정이슈 복잡성의 증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1〉 2013, 2014년 7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지도	취하철회	진행중	조정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4. 7	530	505	216	92	124	206	26	180	33	50	25	51.2
2013. 7	381	356	184	117	67	110	33	77	17	45	25	62.6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233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328건)보다 95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28.1%(63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71.9%(161건)를 차지함.

〈표 12〉 2013, 2014년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4. 6	233	224	59	4	56	29	76	0	9
2013. 6	328	289	110	4	34	32	109	0	40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조선업계, 통상임금을 제외한 임금·단체협약 협의**

- 대우조선해양노사는 최근 통상임금은 협상에서 제외하고, 성과급 300% 지급, 조합원 주식매입 200%, 격려금 280만 원 지급 및 정년은 60세로 연장하되 60세가 되는 해의 임금은 80%만 지급하는 정년연장에 합의함.
 - 통상임금에 대해 노조는 정기상여금 800%와 설·추석·여름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님을 밝혔음.
 - 결국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였으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협상 결과를 보고 추후에 재협상하기로 합의함.

-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모두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나 기존 임금총액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통상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
 - 현대중공업 노사는 26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쌓아 놓은 유보금 19조 4천억 원 중 아주 일부만 사용해도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된다”고 밝히며 “회사가 제시한 방안을 협상상태이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안대로 해도 임금이 삭감되는 일은 없다”며 “노조가 임금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협상할 수 없다면 대표소송결과에 따르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함.
 - 또한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가 도입한 바와 같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성과급 규모를 축소할 통상임금 적용방식을 제안함.
 - 이에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회사 측 제시안은 임금인상 없이 평행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회사가 통상임금을 염두에 두고 1천500억 원을 쌓아 놓았는데 이 금액을 직원들에게 주겠다고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힘.
- 통상임금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노사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우해양조선 노사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대부분이 참고할 통상임금 모델이 없어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한라비스테온공조 노사,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

-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공기조정장치를 납품하는 업체인 한라비스테온공조의 노사는 최근 △상여금 750% 중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 △근무시간 하루 30분 단축 △정년 60세로 연장 △기존 시급제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 등의 패키지 딜에 합의함.
 -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사는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기본급 비중을 높여 임금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고, 나머지 150%는 ‘재직자 요건’을 부여해 설·여름휴가·추석 상여금으로 전환함.
 - 지난해 3월 완성차 업체들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맞춰 ‘오전조 8.5시간+오후조 8.5시간’으로 변경한 노사는 2016년부터 ‘8시간+8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임금하락을 동반하지 않도록 월 25만 원의 보전수당을 신설함.

- 게다가 일을 많이 할수록 임금이 늘어나는 시급제의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함.
- 이 밖에도 조건 없는 정년 60세 연장과 기본급 4.6% 인상, 성과급·격려금 지급 등에 합의함.
- 이 업체의 통상임금 합의가 현재 관련 교섭을 벌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에 유형설정자로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삼성전자와 반올림, 협상에 난항**

-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5월 28일부터 5차례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사과·보상·재발방지책에서 양측의 큰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협상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삼성전자는 현재 유족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고 황유미 씨 등 피해자 8명에 대한 보상을 제시했을 뿐 재발방지책이나 추가 사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았음.
 - 삼성전자는 유족이 협상에 참여한 8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우선 논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나 피해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주장함.
 - 하지만 반올림은 8명에 대한 보상 외에 업무상재해로 의심돼 산재신청을 한 이들과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 모두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 반올림 관계자는 “산재를 신청한 사람들은 신원과 업무이력이 드러나 있고, 산재신청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회유·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함.
- 직업병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더 큼.
 - 삼성전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작업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반올림은 삼성전자 내에 반올림이 추천한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화학물질 안전보건위원회와 외부감사단을 설치하자고 요구함.
-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대립하는 사이, 최근 또 한 명의 삼성전자 반도체 근무자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함.
 - 근무자는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업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단기간에도 고농도의 유해물질 노출이 가능한 작업”이라며

안전을 우려함.

- 반올림은 “삼성전자는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교섭을 하는 중에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 **씨앤엠, ‘대체인력 투입’ 파업 무력화**

- 씨앤엠과 티브로드 원·하청 노동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던 5월 31일부터 7월 20일까지, 씨앤엠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 15억 6천900만 원을 들여 연인원 8천 명에 이르는 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함.
 - 씨앤엠이 영업확대를 위해 단기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업체나 케이블공사업체 직원들이 예비인력에 동원되었는데, 씨앤엠이 이들 업체에 기존 협력업체의 업무인 유선방송 설치·AS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도록 한 뒤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짐.
 -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하청업체의 파업에 대해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어, 씨앤엠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음.
 - 희망노조에 따르면, 씨앤엠은 지난해 말부터 방문판매업체를 대폭 늘려 설치·AS 기사를 고용하도록 했고, 올해 파업을 앞두고 대체인력을 미리 준비해 현재 조합원들이 속해 있는 협력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 한 노조 관계자는 “아무리 적법한 대체인력 투입이라고 하지만 공익성과 이미지로 먹고사는 케이블방송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함.
- 씨앤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씨앤엠 케이블방송에 가입한 시민들은 지난달 11일 씨앤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해고와 직장폐쇄에 항의함.
 -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들은 “노조 파업과 직장폐쇄, 그리고 대체인력 투입으로 서비스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예전 같으면 한 번 와서 처리해도 될 일을 두세 번 찾아오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씨앤엠이 방송의 질을 저하시키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해지선언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노동·시민사회, 보건의료산업 규제완화 반대

- 양대 노총과 1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를 위해 범국민 쟁기대회를 연다고 밝힘.
 -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건의료·교육·금융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보건의료와 관련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지원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국병원 개설 요건 완화를 예고함.
 - 이에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지원에 포함된 의료관광호텔 규제완화의 경우 건물 안에 의료기관 입주를 허용하면서 병원의 체인화가 이뤄질 것이고, 대학병원에 기술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병원 부대사업 범위에 다시 포함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상품화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함.
 - 게다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료인에게만 설립을 허용하는 국내 병원과는 달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유치에 의료기관을 통한 이윤 창출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 민영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물로 기업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11월 1일 국민 10만 명이 참여하는 ‘의료 민영화 반대 범국민 쟁기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힘.

◆ 교회 노동자, ‘교회에 노조 설립’

- 소망교회에서 청소·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집사 50여 명은 대한기독교노조를 설립하고 지난 4월 합법 노조가 되었으나, 교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대한기독교노조를 해산하고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에 가입함.
 -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 시행규정 제15조 제4항은 “교회의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며 교회 내 노조 설립을 금지함.
 - 하지만 교회 측이 환경미화·경비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이들의 식대나 상여금이 정규직보다 적고 근무시간 등 노동환경도 차별을 받았음.
 - 또한 해고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자리에 대부분 용역으로 채워지면서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음.
 - 이에 청소·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50여 명은 대한기독교노조를 설립하여 불합리한 근로조건과 급여체계를 개선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어 해산하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가입함.

- 노조 관계자는 “교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상급단체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의 노동자를 조직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 한국노총, 8개월 만에 노사정위 복귀 결정

-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경찰 난입사건으로 불참했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음.
 -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일방통행식 노동정책 기조에서 탈피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진정성 있게 대화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함.
 - 한국노총은 지난 7월 29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위 내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 설치를 제안하였고, 이를 정부와 경영계가 수용함.
 - 하지만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는 한국노총 소속 3개 산별연맹이 노사정위에 참가하되, 노정 교섭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은 공대위 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함.

◆ 고용노동부,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순동산업단지(전북 김제), IT중소기업 밀집단지(경기 화성),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강원 춘천) 등 세 곳을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에 선정하여 해당 산업 단지 내 노동자 3천여 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함.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곳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5차례 공모를 거쳐 20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임.
 - 선정된 산업단지는 규모에 따라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의 90%를, 용자지원을 더하면 최대 2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중소기업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일부도 지원함.
 -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업밀집지역 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여 가겠다”고 밝힘.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